

BASF, Sunoco 가소제 사업 인수

북미 Isobutyraldehyde 상업시장 축소 ... BASF · Sunoco 10% 점유

BASF의 Sunoco 가소제 사업 인수가 곧 완료될 것으로 보여 북미 Isobutyraldehyde 상업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유일한 Nonintegrated Isobutyraldehyde 생산기업인 Sunoco는 당초 Isobutyraldehyde 사업 업그레이드 및 다운스트림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Isobutyraldehyde 시장규모는 약 30만톤에 달하나 상업시장은 겨우 2만-2만5000톤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Sunoco가 1만4000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Sunoco는 상업시장 뿐만 아니라 자가소비 및 다운스트림 제품 생산기업에도 Isobutyraldehyde를 공급해 왔다.

Sunoco는 당초 Isobutyraldehyde계 제품을 통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BASF와 텍사사주 Pasadena 소재 Oxo Alcohol 플랜트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어 당분간 사업확장 계획이 지연될 전망이다.

BASF가 Sunoco의 Pasadena 부지를 포함해 Phthalic Anhydride 및 Oxo 플랜트를 인수하게 되면 Sunoco의 가소제, Ester, 2-Ethylhexanol 및 Phthalic Anhydride 사업도 넘겨받게 된다.

북미 Isobutyraldehyde 가격은 대량 수요기업을 기준으로 파운드당 약 19-22센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프로필렌(Propylene) 및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의 소비증가율은 GDP 성장률 수준인 2-3%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Sunoco 및 BASF는 북미 가소제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ExxonMobil Chemical 및 Eastman Chemical 의 뒤를 이어 각각 3, 4위를 달리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11>